관 계 부 처 합 동	보 도 참 고 자 료 2월 27일(금) 조간 (인터넷, 방송, 통신 2.26.12:00 이후 보도)			
배 포 일	2015.2.25 / (총 18 매)			
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	과 장	손일룡, 손영래, 정은영	전 화	044-202-2422, 2730, 2980
	사 무 관	박찬수, 서민수, 이유리, 김정연		044-202-2425, 2557, 2744, 2987
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반팀	팀 장	남 석	전 화	02-2110-2904
	사 무 관	김경아		02-2110-2903
법무부 의료과	과 장	우희경	전 화	02-2110-3610
	사 무 관	박경선		02-2110-3388
국방부 보건정책과	과 장	권영철	전 화	02-748-6640
	사 무 관	정도환		02-748-6654
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	과 장	정해권	전 화	044-203-4390
	사 무 관	조우정		044-203-4395
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	사 무 관	박용한	전 화	044-200-5745

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

- 원격협진 활성화로 농어촌 등 취약지 환자에게도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
- 의료진이 없는 원양선박, 격오지 부대 장병 등에게 원격으로 적시 의료서비스 제공
-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로 고혈압·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
- 도서벽지 주민에게 다양한 원격의료를 제공하여 의료접근성 향상
- 해외 유치 환자 및 해외 진출병원 현지 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

구 분	2014년	2015년
참여부처	복지부, 미래부	복지부, 미래부, 법무부, 국방부, 산업부, 해수부
참여기관/시설	의료기관 18개	의료기관, 군부대, 원양선박,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140여개
사업유형	의료기관(보건소, 의원) 대상 원격모니터링, 원격진료	사업모델 및 대상(군장병, 원양선원, 해외환자 등) 다양화
소요예산	13억원	91.3억원

□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'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'을 마련,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.

○ 이번 방안은 ▲**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'의료인간 원격협진' 활성화** ▲**원양선박·군부대·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** ▲**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** ▲**해외환자 사전·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**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.

○ 첫째, '의료인간 원격협진'에 대해 모델개발·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.

-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 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.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, 경북,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.

- 이와 함께 **응급실 간** 이루어지고 있는 **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**에 대한 **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시작(3월)**으로, 종합병원(상급종합포함)-지역 병·의원 간 **의뢰·회송 환자 원격 협진**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(상반기 중)하고,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**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**한다.

○ 둘째, 물리적 제약 등으로 **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**한다.

- 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,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셋째,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**'15년 50개소, 1,8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**하고 **서비스 모델을 다양화**한다.

-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**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**하고, 의료기관(보건소 또는 의원)이 **도서벽지 보건진료소** 또는 마을회관 등 **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** 등과 연계하여 **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**하는 등 물리적으로 **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**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**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**한다.

○ 넷째, **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**를 위해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,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**Pre-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**하여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.

- 또한 **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**의 국내 본원이 **영상판독,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**하는 **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**한다.

□ 각 과제들은 총 **6개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추진***된다. 원격의료의 **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, 사업 모델을 다양화**하여 각계각층의 **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**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

*** 복지부, 미래부, 법무부, 국방부, 산업부, 해수부**

○ '14년 의원·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**의료기관, 군부대, 원양선박,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**할 계획이며, 총 사업비는 **약 90억원이 투입**될 계획이다.

□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의료기관들의 참여하에 추진되며,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.

○ 이에따라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에 적극 동참하여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복지부 관계자는 "이번 계획을 통해 **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**되어 **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**되고, 농어촌 등 **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**받게 되길 기대"한다며

○ "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, 유효성,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<과제 세부 내용>

□ **(핵심과제 1)**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'의료인간 원격협진'에 대해 모델개발·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① **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**

- **(개요)**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의 지식과 경험을 농어촌 취약지 응급환자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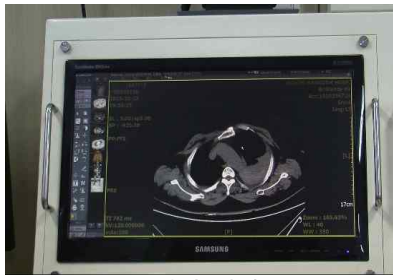
- **(서비스 내용)**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서 전문의 자문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,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에 원격협진을 의뢰하고 CT 영상과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료하게 된다.

  · 취약지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거점병원으로 이송하되, 이송되는 동안 거점병원에서는 파악된 환자상태를 기반으로 수술을 준비하여 응급수술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

①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의뢰


②거점병원 전문의 협진


③ CT 영상 협진 판독



④ 중증외상 진단 후 닥터헬기로 이송

- **(대상 지역·기관)** 거점 대도시와 농어촌 취약지가 인접한 7개 지역에서 7개 거점병원과 40~50개 취약지 병원 대상으로 '15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.

  * 대상지역 및 거점병원 : 강원 춘천성심병원, 경북 안동병원,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, 인천 가천길병원, 제주한라병원, 광주 전남대병원, 전남 목포한국병원

- **(추진 일정)** CT 등 영상정보와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, 4월말부터는 농어촌 취약지 응급환자가 원격협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.

- **(기대효과)**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환자도 전문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취약지 응급실의 대응역량이 향상되어 불필요하게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<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례 >

경운기 사고를 당한 C씨(남/52세)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 CT를 찍었지만, 취약지 응급실 의사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공중보건의사로 뇌 CT 판독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뇌출혈 진단이 쉽지 않았다. 원격협진이 도입되면 거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원격협진을 의뢰해 환자 CT 영상을 함께 보고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자문받을 수 있다.

② **원격 협진 대상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**

- (개요) **의료기관 간 응급환자나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원격 협진**에 **건강보험 시범 적용**을 통해 **협진을 유형화하고, 적정 수가를 마련**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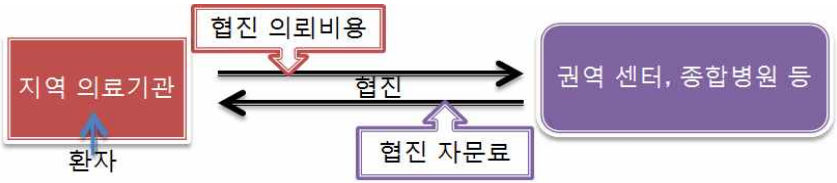
- (모형) **두가지 모형**의 원격 협진에 대해 **시범 사업을 추진**한다.

  · 권역 응급의료센터-지역 응급의료센터(기관) 간 응급환자 처치 방법 또는 이송여부 등에 대한 협진

  · 종합병원(상급종합포함)-지역 병·의원간 환자 의뢰 또는 진료한 환자 회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나 예후 등에 대한 협진(자문)

- (주요내용) 유형별 원격 협진에 대해 협진 요청 기관 및 협진에 응하여 자문하는 기관 각각에 해당하는 **시범 수가를 마련하여 산정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<원격 협진 시범 적용 수가 형태>



- (대상 기관) **시범 적용 참여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**하되, 기관 간 협진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있는 **응급 모형부터 선정·적용한다.**

· 응급 모형은 **1월 말부터 공모를 진행**하여, 원격 협진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권역응급센터인 **단국대병원, 명지병원,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및 그 협약기관(21개)**에 대해 **시범적용** 예정이다.

- (추진 일정) 시범 기관이 선정된 **응급 모형은 3월부터 적용**을 시작하고, **의뢰·회송 모형은** 협진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**상반기 중 시범병원을 공모, 적용**할 예정이다. 약 1년간의 시범 적용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을 통해 **'16년 상반기 중 정식 수가로 전환**한다.

- (기대효과) 의료기관간 협진이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환자에 대한 **의료서비스 수준향상** 및 **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**할 것으로 보인다.

· 응급모형의 경우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**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**해지며,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센터로의 이송 전 협의 및 준비 통해 **이송 후 신속한 조치로 응급조치의 효과성**을 높일 수 있다.

· 의뢰-회송 과정의 협진이 활성화되면 **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완화**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끝난 환자를 **지역의 소규모 병·의원으로 회송하는 것도 원활**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(핵심과제 2)**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으로 **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**

① 원양운항 선박 선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

- (개요)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운항 선박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범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.

· 원양 운항선박의 경우 승선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선원 고령화로 만성 질환이 늘고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

* 기존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위성전화를 (32#) 활용하여 응급상황 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처방,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는 곤란한 실정임

- (서비스 내용) ① 위성통신을 이용한 화상 및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(경증질환, 선내 비치 의약품 사용지도, 선박내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지도) ② 임상 데이터(과거 진료기록 및 선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축적된 데이터), 과거 진료·투약 기록을 조회하여 진료 및 정기적 건강관리를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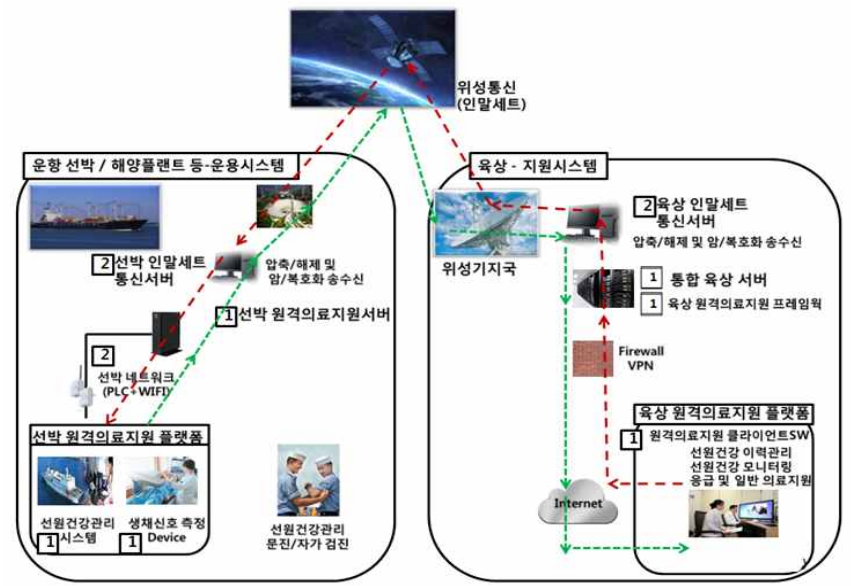
· 원격진료센터는 부산대병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선박에는 심전도계, 소변분석기, 혈압계 등의 검사 장비와 전자청진기, 화상 스코프 등이 탑재되어 위성통신을 통해 원격진료센터와 연결되어 진찰과 의료지도가 이루어진다.

- (대상 선박) 선원이 장기간 승선하여 근무하는 외항상선(3척), 원양어선(3척) 선원(약 100여명)을 대상으로 추진되며, 대상선박은 4월 이후 출항하는 선박 가운데 선정될 예정이다.

* 시범사업 대상 척수는 선박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- (추진 일정) 빠르면 4월 출항 선박부터 원격의료 장비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현재 부산대병원 등과 설치 장비 및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다.

< 위성통신을 이용한 해상 원격 진료 시스템 개요 >



<선박 통신 장비를 이용한 한누리호↔부산대병원간 원격진료 시연 모습>



- (기대효과) 의료진에 의한 적시 진료, 선원들의 합병증 및 응급질환 발병 감소를 통한 선상 근무만족도 향상으로 장기승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· 또한 불필요한 항로이탈(deviation)을 줄임으로써 선박운항 차질을 예방하여 국적 선사의 국제적 신뢰 향상 및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,

* 대형유조선(VLCC, 25~30만톤)의 경우 1일 항로이탈 시 총 9만불 발생 (유류비 3만불, 1일 용선료 6만불)

· 이와함께 해양 원격진료 플랫폼을 완성하여 국내 의료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원양선박 원격의료 시범사업 가상 사례 >

○ (사례1) H해운 컨테이너선에 근무하는 A씨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다. 3일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기침이 지속되고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이 차서 일을 할 수 없었다. 이에 선내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호흡기 전문의 진료협진을 하였고 선박내 비치된 폐활량계로 측정한 폐기능이 정상 예측치의 38%로 감소되었으며, 모바일 청진기 상 천명음을 확인하여 천식 악화로 진단되었다. A씨는 선박내 비치 중인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흡입 및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5일 뒤 증상이 호전되어 선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.

○ (사례2) D원양회사 참치 원양어선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승선한 A 선원

- (종전) A 선원은 협압관리가 필요하여 출항 전에 3개월 분량의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진단없이 가족들이 대신 혈압약을 구입해 송부함
- (도입후) 선내 설치된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A 선원의 협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진찰을 통해 정확한 투약 필요량을 처방받아 송부할 수 있게 됨

○ (사례3) 우리나라 평택항과 카타르간 LNG를 운송하는 S 선사

- (종전) 선박에서 사고로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 및 부상 정도를 진단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해 회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
- (도입후) 화상의료시스템을 통해 전문의사가 부상 정도 및 병세를 진단하고 치료를 지도할 수 있어 질병, 부상의 정확한 치료 및 회항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

② 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

가. 격오지 원격진료

- (개요) 현재 GP 2개소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전후방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· GP 등 격오지 부대 근무 장병은 진료를 받으려면 대대 의무실 또는 사단의무대까지 가야 하는데, 가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

소요되고, 기상이 악화될 때에는 이마저도 제한되어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- (서비스 내용)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원격진료지원센터에 전화로 원격진료를 요청하고, 원격진료지원센터 군의관(전문의)은 화상 PC를 통해 환자를 진료한다.

  · 진료 범위는 ① 감기, 두통, 복통 등 경증질환 진료, ② 중증환자 및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후송, ③ 동상, 식중독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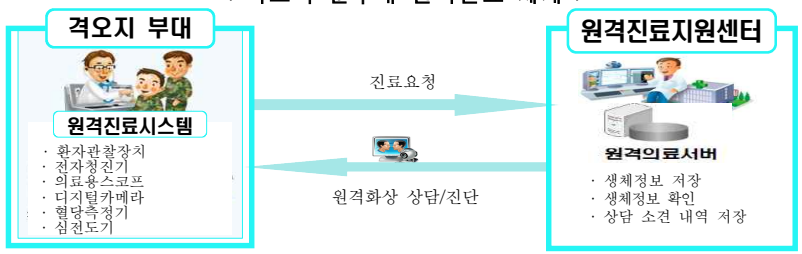
  * 원격진료지원센터에는 화상통신장비가 구축되어 있고, 격오지 부대에는 환자 관찰장치, 전자청진기, 의료용스코프 등의 의료기기와 화상통신장비 설치

- (대상부대) 군의관이 없는 **육군 GP 및 대대급 부대 30개소와 해·공군의 격오지 부대 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**할 예정이다.

- (추진일정) 현재 시범사업 대상 부대를 선정 중이며, 3월부터 장비 사양을 확정하고, 조달 의뢰, 업체 선정, 장비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**7월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**이다.

- (기대효과) 격오지 원격진료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격오지 근무 장병들이 아플 때 전문의의 진료를 즉각 받게 하고,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지도를 통해 장병들의 생명을 구호하는 등 격오지 부대 근무 장병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격오지 군부대 원격진료 체계 >



< 국군 의무사령부 원격진료지원센터와 GP 간 원격진료 시연 모습 >



<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범 사례 >

○ GP에서 근무하는 A병사는 경계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러졌다. 이후 구역질을 하며, 두통을 호소하자 해당부대 의무병은 즉시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진료지원센터에 전화로 원격진료를 요청하여 화상으로 연결하였다.

– GP와 화상으로 연결된 원격진료지원센터의 군의관이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A병사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결과 뇌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
– 원격진료지원센터에서 군 병원에 우선 촬영을 협조하였고, 다음날 A병사는 군 병원에서 뇌 CT/MRI 촬영을 받았다. A병사는 촬영 결과 '뇌 혈관종'으로 진단 받았다.

나. 원격건강관리

- (개요) 건강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이 개인별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한다.

- (서비스 내용)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될 원격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인력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계획(식이요법, 운동처방 등)을 수립하고

  · 건강관리 대상자가 부대 내에 설치된 건강관리부스(가칭)에서 주기적으로 혈압, 체성분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원격건강관리센터로 전송하면

  · 전문인력이 이를 분석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수행한다.

< 군부대 원격건강관리 체계 >



- (대상부대) **육·해·공군 10개 부대**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
- (추진일정) 3월에 대상부대를 확정하고, 국방부-산업부 협의를 통해 업체 선정 및 계약, 대상자 선정, 시스템 설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**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**이다.

- (기대효과)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병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사전 예방과 장병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

- (개요)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교정시설에 질병 조기발견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旣 실시 중인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
- (대상 기관) '15.2월 현재 27개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 등)에서 만성질환, 피부과, 정신과 등의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, **금년중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가 많은 2~3개 기관에 대해 추가로 원격진료를 실시**할 계획이다.

- (추진 일정) 현재 대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며, 장비 조달 및 설치 등을 거쳐 **7월부터 신규기관에서 원격진료를 개시**할 계획이다.

□ **(핵심과제 3)**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 중인 **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'15년 50개소, 1,800여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실시 모델을 다양화**

① 의사(의원)-환자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

- 현재 시범사업 실시중인 의료기관 외에, 추가로 **의원급 의료기관 15개소를 추가 모집**하는 등 참여기관 및 참여 환자를 확대한다.

- **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**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**원격모니터링은** 이러한 **만성질환 관리의 주요한 수단**이 되어줄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  * 3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(2013 국민건강통계) : 고혈압('07. 24.6%→ '13. 27.3%), 당뇨('07. 9.6%→'13. 11.0%)

- **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은 적정·지속 관리를 통해서 중증질환 및 합병증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필요**가 있으나,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, 장애인 등과 바쁜 일상의 직장인 등이 **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서 의료인의 관리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**이다.

- 이에 따라, **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일상생활에서의 환자의 신체상태 등을 의사가 수시로 확인·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**한다.

- (서비스 모형) 가정에서 환자가 **자가측정한 생체정보를 게이트웨이(스마트폰, PC 등)를 통해 의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**하고 의사는 전송된 생체정보를 토대로 **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피드백**하는 **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제공**한다.

- 3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등을 추가 모집하고, 4월 시스템 설치, 교육, 환자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,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<의사-환자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형>



②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+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실시

-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, 도서벽지 지역과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, 장애인, 요양시설 환자 등에게 **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**하고 **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**한다.

-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, 보건진료원 업무범위 이외의 진료 등이 불가하고, 보건진료소 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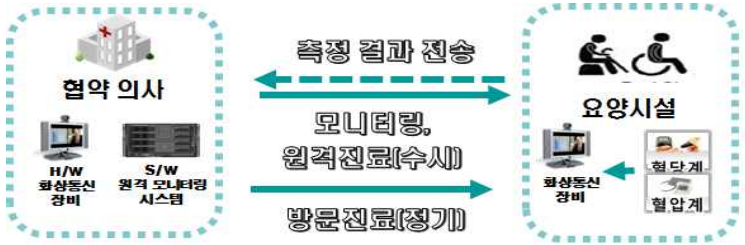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, 경증질환이나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처방을 위해 장거리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는 **의료취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할 필요**가 있다.

- (서비스 모형) 의료기관(보건소, 의원)이 도서벽지의 보건진료소 또는 경로당 등 공용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에 대해 **간호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실시**한다.

  · **요양시설**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양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(화상 및 신체정보 측정)을 구축하고, 촉탁의가 방문진료하지 않는 기간 동안 **시설내 간호인력의 도움**

을 받아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의사(촉탁의 등)간 화상을 통해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실시한다.

<요양시설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서비스 모형(안)>



· **도서벽지 지역 중 보건진료소**가 있는 지역은 보건진료원의 도움을 받아 **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실시**하고, 가정에서 기기 활용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의사-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.

· **공용시설**은 농어촌 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의 **경로당, 마을회관 등을 대상**기관으로 선정하고, **화상통신 및 신체정보 측정 장비를 설치하거나, 방문간호사의 휴대용 장비를 활용**하여 의료기관과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실시한다.

<도서벽지 지역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서비스 모형(안)>



- 3~4월에 대상 지역 및 참여 의료기관 등을 확정하고 시스템 설치, 교육, 환자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,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**(핵심과제 4) 해외환자 사전·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**

① 해외-국내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활성화(서울대병원 모델)

- **(개요)**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을 적용해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-서울대병원 본원간 원격협진을 실시한다.

- **(서비스 내용)** 병원정보시스템을 적용해 UAE 현지 환자에 대해 원격 영상판독, 이차소견 서비스 등 의사 대 의사 원격협진을 실시한다.



- **(추진 일정)** 현재는 세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환자 의뢰접수 및 회신, 재원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전달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, 4월 전면 개원 이후 점차적으로 화상 원격협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.

- **(기대효과)** 원격협진을 통해 UAE에 파견 한국 의사 수가 제한적(34명)이라는 한계를 극복해,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치료 효과를 달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해외 유치 환자 대상 Pre-Post care Center(PPCC) 개소

- **(개요)** 중동 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송출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송출되는 중증환자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 중동 현지로 사전·사후 진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 UAE 정부송출환자 : ('12) 89명 → ('13) 351명 → ('14) 806명

- **(서비스 내용)** 한-중동 병원간 진료기록 형식, 관련 지침 등을 표준화하고,

비용 청구시스템 등을 전산화하여 중동 정부 송출환자의 정보관리, 사전·사후 검진 및 환자의료정보 교환 등을 지원한다.

- **(참여 기관)** 아부다비보건청 산하 공공병원에 현지 센터와 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UAE 현지 병원 의료진과 아부다비 환자를 치료하는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진과의 사전·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.



- **(추진 일정)** 현재 PPCC 적용 시스템 개발이 진행중(외상 환자 시스템 우선 개발)이며, UAE 아부다비보건청 산하 Mafraq 병원에 현지 센터를 구축하여 금년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. 추후 시스템 적용 대상 질환(외상→이식, 암, 심장, BMT 등)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(UAE 두바이, 카타르 도하 등)이다.

- **(기대효과)** 한국으로의 중동정부송출 환자 치료의 효율성, 연속성을 제고하고,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로 국내로 송출되는 중동환자의 증가 및 연관 산업의 현지 진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중동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환자의 편의성 확보 및 비용절감 충족